

## 『솔라』에 나타난 양면성의 화합과 대립

허 윤 정\*

### 목 차

- |             |             |
|-------------|-------------|
| I. 서론       | 3. 선과 악     |
| II. 양면성의 대립 | III. 수용과 화합 |
| 1. 흑인과 백인   | IV. 결론      |
| 2. 물과 불     |             |

### I. 서 론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여성작가인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1970년 첫 작품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를 시작으로 2008년 『자비』(*A Mercy*)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여 왔다. 그녀의 작품세계는 선과 악, 우정, 사랑, 모성애, 죽음, 섹스와 같은 인간성의 보편적인 문제는 물론 인종차별, 전쟁, 공동체와 같은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녀는 이런 문제들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흑인들이 가진 음악성 그리고 작가로서의 풍부한 함축성을 가지고 평범한 단어들로 표현해내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모리슨의 작품들을 단순한 사회적 잣대를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독특한 흑인 소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모리슨은 흑인들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나아가 인간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 하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이야기 한다. 그녀는 인간 내면의 갈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교육학 석사

등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두 가지 대립적인 요소들 간의 양면성을 논한다. 이것은 기존 백인 사회가 가졌던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보다 관용적인 모습으로 한 대상이 지닌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의 여러 작품 중에서 특히 『sula』 (Sula, 1973)는 모리슨의 이러한 시각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sula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추구했기 때문에 20세기 소설의 인물 중 가장 혁신적인 여성 캐릭터라는 소리를 듣는 동시에 모리슨 작품 속의 등장인물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아웃사이더라는 양면적 평가를 받는다. 모리슨은 sula를 “새로운 여성상”의 구현으로 본다.

나는 항상 sula를 진정한 흑인이자 형이상학적인 흑인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이것은 멜라닌 색소 때문도 아니고 부족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서도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에서 선택을 하며,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반응하는 그녀는 새로운 세계의 흑인이자 새로운 세계의 여자이다. 그녀는 즉흥적이고, 용감하며, 파괴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현대적이고, 집 밖으로 나와 있으며, 사회에서 추방되었고, 다루기 힘들며, 억제 할 수도 억제 될 수도 없다.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여성적이다.<sup>1)</sup>

sula는 기존의 수동적인 흑인 여성 모습을 벗어나서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행동했으나 자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과 원활한 교류를 하지 못했고 스스로 소외되기를 원한다. 모리슨은 남의 이목을 끄는 sula와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을 통하여 인간관계 상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포착한다. 여기에 더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양면성에 관한 흑인들의 사고방식과 흑인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동시에 백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흑인들의 이중성까지도 전달한다.

흑인들을 바라보는 모리슨의 시각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혀 있다. 양면성이란 큰 틀을 통하여 대립을 나타내지만 수용과 화합에 관한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 이 논문은 흑인과 백인, 물과 불, 선과 악이란 양면성을 지닌 대립적 요소들을 다룬다. 흑인과 백인의 문제는 대표적인 미국의 갈등이며 풀어나가야 할 화합의 과제이다. 바텀 흑인들과 그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백인들 사이의 문제를 통하여 모리슨이 흑인과 백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아본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양면적 상징체계인 물과 불을 통하여 양면적 대립관계에 놓인 이미지를 분석한다. 또한 모리슨이 이 소설을 쓴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과 악에 관하여 재조명 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양면적

1) Toni Morrison, “Unspeakable Things Unspoken: The Afro-American Presence in American Literature,” *Michigan Quarterly Review*, 28 (Winter 1989): 1-34. Maggie Galehouse, “New World Women: Toni Morrison’s Sula”, *Papers on Language & Literature*, 35.4 (Fall 1999): 1. Recited.

대립 요소들을 바탕으로 모리슨이 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수용과 화합의 구조를 연구한다.

## II. 양면성의 대립

### 1. 흑인과 백인

모리슨의 「술라」는 흑인 저항 소설은 아니지만, 백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던 흑인의 모습을 넘어서서 흑인의 눈과 흑인의 참된 모습을 보려고 하고 흑인의 참된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인종문제는 여전히 미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흑인 소설에서 흑인과 백인간의 관계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술라」에서도 흑인과 백인간의 심각한 대치 상태가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다. 모리슨은 서문에서부터 소설의 배경인 '바텀'(Bottom)의 형성과정을 흑인과 백인에 관한 '흑인 농담'(nigger joke)으로 기술한다. 바텀은 메달리온 읍내 한 변두리 지역으로서 언덕 위에 위치했으면서도 바닥이란 뜻을 가진 곳이다.

어느 선량한 백인 농부가 자신이 부리던 흑인 노예더러 아주 힘든 일을 잘해내면 자유와 한 뼘기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 일을 다 해낸 흑인 노예는 주인에게 약속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를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농부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의의가 없었다. 그러나 농부는 땅땀기만은 떼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백인 주인이 말했다.

"아, 아닐세! 저기 언덕을 보게나. 저곳이 기름지고 비옥한 바닥 땅이지."

"하지만 저기는 언덕 꼭대기인데요." 노예가 말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높은 곳이지. 하지만 하느님이 내려다보면 저곳은 바닥이야. 그래서 저곳을 바닥이라고 부르지 않나. 천국의 바닥—최상의 땅이 있는 곳일세."<sup>2)</sup>

바텀은 바로 이러한 흑인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장소이자 흑인문화가 빛을 내는 곳이다. 맥도웰(Deborah E. MacDowell)은 바텀 형성과정 및 흑인농담과 관련하여 "「술라」는 끈질기게 양면적 대립을 흐리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 바텀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백

2) Toni Morrison, *Sula*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p. 30. 이후 본문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쪽수를 명시키로 한다. 단 인용문은 한글 번역본 「술라」(서울: 들녘, 2005), 김애주 역을 따른다.

인의 이분법적 사고와는 다른 흑인만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 있다. 바텀의 형성과정은 꼭대기와 바닥(top/bottom), 유머와 울분(humor/anger), 선함과 악함(good/evil)의 양면적 대립 관계를 제시한다. 백인들이 가진 이분법적 사고와 달리 흑인들이 말하는 양면적 대립관계의 경계는 애매모호하다. 꼭대기에 위치했으면서도 바닥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울분을 터뜨려야 할 내용을 유머로서 이야기한다. 흑인노예를 속인 백인주인 조차 '선한'(good)사람으로 표현한다. 흑인들은 한 대상을 바라볼 때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 특성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바텀의 형성과정에 나온 흑인농담은 희비극조(tragic-comedy)이다. 문자 그대로 희비극조는 양면성이 있다. 희비극조는 흑인농담뿐만 아니라 블루스(Blues)와 같은 다른 흑인문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는 흑인의 정신을 말해준다. 희극과 비극이 동시에 존재하는 흑인 농담을 통하여 흑인들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힘든 삶을 표현한다. 흑인문화는 유머의 문화<sup>3)</sup>라고 일컬어진다. 백인들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했던 흑인들에게 있어서 웃음은 고통의 한 부분이다.

- 그러나 노예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며 기쁜 일에는 웃고 슬픈 일에는 울어야 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닌 백인들은 이러한 흑인문화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백인들은 집세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바텀에 오거나 우연히 사냥하다가 그 마을을 지나칠 때 너도밤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등이 드리워지고 배꽃이 만개한 바텀의 아름다운 '겉모습'과 흑인들이 둘러 앉아 흥겹게 춤추며 노는 모습만을 보며 '선한 백인 농부'의 말대로 바텀은 진짜 천국의 바닥인가 하고 의아해 한다.

흑인 농담처럼 흑인과 백인의 가치관의 차이가 좀 더 뚜렷이 나타나는 장면은 술라가 할머니 이바(Eva)를 양로원에 보냈을 때이다. 이는 술라가 바텀에서 악녀로 취급당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흑인들에게 있어서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는 행위는 천륜을 배반하는 행위와 같다. 모리슨도 스텝토(Robert Stepto)와의 인터뷰에서 술라의 행위가 흑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술라는 그녀의 할머니를 양로원에 집어넣음으로써 흑인들에게 끔찍한 한 가지 일을 저질렀고, 이는 도리에 어긋난 행위였다. 당신은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끔찍했을 것이다.<sup>4)</sup>

술라가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낸 사건을 통하여 흑인 사회는 다른 가치보다도 특히 공동체를 중시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술라의 할머니 이바는 다리 한

3) 장태한, 「黑人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p. 264.

4) Robert Stepto, "Intimate Things in Place: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4), p. 16.

쪽이 없는 불편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라는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낸다. 이는 가족애를 중시하는 흑인세계에 충격을 준다. 술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술라를 잘 이해하는 넬(Nel)조차도 술라의 이러한 행동을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백인들은 자신의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흑인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백인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으나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백인보다는 오히려 공동체를 중시하는 동양인의 시각과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백인들은 그들의 늙은이들을 양로원으로 보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흑인들의 경우에는 노인네들을 될 수 있으면 그들의 집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가 나이 들어 혼자 가 댔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마루를 닦아주거나 음식을 해주었다. 이바를 내뿜는 비열한 술라 같은 사람만 제외하고. (164-165)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낸 일 외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술라가 나쁜 여자라고 취급당하는 이유는 가장 친한 친구인 넬의 남편 주드(Jude)와 동침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라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술라와 주드의 동침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남녀의 불륜 관계로 보기 보다는 미국 내 흑인들이 받는 인종차별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주드처럼 건강한 신체를 가진 흑인 남자들은 힘쓰는 직업을 갖길 원하지만 백인들의 차별에 의하여 육체 노동직을 가질 수 없다. 백인 중심사회에서 흑인 남자들은 호텔 웨이터, 심부름꾼과 같은 잡일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흑인들보다 훨씬 힘없고 형편없는 백인 노인들이나 부랑자들이 육체노동직에 고용이 됨으로써 흑인 남자가 가진 좌절감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진짜 일을 해낼 수 있는 주드 같은 흑인 남자들. 주드도 보수가 좋아서라기보다 일 자체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고용되길 원했다. 그는 곡괭이를 휘두르거나 무릎을 꿇고 줄을 잡아당기거나 자갈에 삽질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내리치는 커다란 해머가 자기 발등에 떨어져 발등을 으깨놓는다면 그리고 왜 절뚝거리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뉴 로드를 건설하다 다쳤죠."하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81-82)

사실 주드는 넬과 결혼할 의도가 없었다. 계속된 일자리 실패로 인한 즉흥적 불안감으로 넬에게 결혼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즉 제대로 된 남자 역할을 한 번 해보겠다는 분노의 결심에서였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어른스러운 면을 이해해주길 원했고, 그의 상처를 보살

퍼주며 걱정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이 정복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소녀인 벨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드는 결혼한 뒤에도 흑인 차별을 견뎌내지 못하고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술라는 백인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여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주드와 같은 흑인 남자의 애환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술라는 백인남자들이 흑인 남자의 성기를 부러워 한다는 것과 백인 여자들이 흑인 남자들의 정력을 남몰래 사모한다는 등의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말을 통하여 심신이 지친 주드를 위로해준다. 주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술라와의 동침은 자연스러운 일인 지도 모른다. 주드를 비롯한 바텀의 남자들은 백인들의 사회에서 오는 차별과 편견에 억눌려 수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백인들은 흑인들의 건강한 육체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육체를 탐내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많은 백인남성들은 흑인 남성의 성기에 대한 환상을 지니고 있었다. 『블랙 라이크 미』(Black Like Me)의 저자 그리핀(John Howard Griffin)이 말하길 백인들은 한결 같이 흑인의 성생활에 병적인 호기심을 가졌으며 흑인 성기는 엄청나게 크고 매우 다양한 성적 경험을 가졌으며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지녔다고 믿었다. 또한 흑인들에게 외설스런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백인들에게는, 흑인은 백인들과 다른 종족이며 인간 존엄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잠재의식이 깔려있었다.<sup>5)</sup>

백인들은 흑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흑인 여자들에게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흑인 남자가 백인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한 반면 흑인 여자는 거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주변적인 인물로 여길 뿐이다. 과거 흑인 여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대개 뚱뚱하고 못생겼으며 백인에게 순종 잘하며 백인 주인집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인심 좋은 아줌마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백인들이 정한 왜곡된 시선이며 옛날 할리우드 영화나 문학 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입된 편견이다.

사실 백인들이 흑인여자들을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인식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백인 주인 남자들이 흑인 하녀들을 겁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백인 사회에서는 감추고 싶은 사실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 따라서 백인 남자들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흑인 여자들을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로 전락시켜 백인 여자와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sup>6)</sup>

그러나 술라는 이러한 백인들의 편견을 뛰어넘는 흑인 여자이다. 술라는 기존의 백인들이 정한 뚱뚱하고 못생겼으며 인정 많은 흑인 여자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술라는 다른 흑인 여자들과 예쁘고 날씬하며 음식을 많이 먹어도 남들 앞에서 트림한 적이

5) 존 하워드 그리핀, 하운숙 역, 『블랙 라이크 미』, (서울: 살림, 2009), pp. 165-179.

6) 장태한, pp. 281-283.

없을 정도로 정갈하다. 그래서 술라의 모든 행동은 마을 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외모뿐만 아니라 술라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행한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며 사람들의 비난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술라를 통하여 모리슨은 피부색깔과 관계없이 보통 흑인 여자를 넘어선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술라가 새로운 여성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성뿐만 아니라 그녀가 처한 가정환경의 영향도 크다. 술라의 할머니 이바와 어머니 한나 역시 기존의 백인이 생각하던 평범한 흑인 여자들이 아니다. 이바는 커다란 하숙집의 군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길 원한다. 한나는 개방된 성생활을 즐기며 억압된 여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한다. 이 덕분에 술라는 그동안 고정관념에 갇힌 흑인 여자의 모습을 뛰어넘어 새로운 여성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술라는 타고난 본성과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백인의 편견을 넘어선다.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술라는 친한 친구 넬이 정체성을 찾는 걸 도와준다.

술라를 알게 된 이후로 넬은 잠자리에 들자마자 빨래집게를 담요 밑에 살짝 밀어 넣었다. 토요일 저녁마다 지긋지긋한 머리빗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그 결과-부드러운 머릿결-는 그녀에게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했다. (55)

술라와 달리 넬은 평범한 흑인 여자이다. 그녀는 술라를 통하여 더 이상 백인여자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흑인이 백인처럼 행동했다고 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흑인만의 '자신다움'이야말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흑인은 오랜 노예생활로 인하여 미국 내 다른 민족 중에서 백인 사회에 가장 잘 동화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 흑인의 위치는 불안정하다. 흑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도 못했고 백인 사회로 완전히 편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리슨 또한 미국 내 흑인의 위치에 대하여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일뿐만 아니라 미국인이며.....미국에서 새로운 인간”<sup>7)</sup>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모리슨은 넬처럼 흑인만의 정체성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백인들은 자신들의 시각에 올바르지 않으면 배척하고 차별했다. 이로 인하여 흑인들은 다른 인종보다도 극심한 편견에 쌓이게 된다. 모리슨은 독자들에게 그 동안 백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흑인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서 흑인을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다. 상대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대립적인 관계를 완화

7) Christina Davis,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4), p. 225.

시키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다.

## 2. 물과 불

『술라』에서는 물과 불이라는 대립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이미지가 소설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다. 물과 불에 관한 이미지는 예전부터 많은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었다. 친숙한 물과 불의 이미지는 독자들로 하여금 『술라』의 양면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물과 불의 이미지를 통하여 모리슨의 섬세하고도 뛰어난 문장력을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모리슨은 이런 보편적인 원형 이미지를 씬으로써 인간이라면 흑인이 아니더라도 그녀의 소설을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게 글을 쓴다. 크리스찬 (Barbara Christian)은 모리슨이 『술라』의 작중 인물들과 관련하여 우주의 네 가지 원소를 형상화 했다고 말한다. 이바와 한나를 불, 술라를 물, 벨은 땅, 그리고 날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술라를 떠난 에이 잭스를 공기에 비유한다.<sup>8)</sup>

『술라』 도처에 물과 불의 투쟁적인 요소들은 항상 존재하는 죽음의 모티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언급한 결과, 이 소설은 자연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변형시키는 창조성과 파괴성의 특성을 반영한다. 많은 모티브들 중에서 아마도 불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다.<sup>9)</sup>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서 물은 ‘부드러운 물’과 ‘난폭한 물’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즉 부드러운 물은 봄의 물과 같이 신선하고 창조적인 반면 어둡고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심연의 난폭한 물은 인간에게 두려운 요소로 작용하며 죽음과 관련된다.<sup>10)</sup> 모리슨이 사용한 물의 이미지는 전자 보다 후자의 이미지가 강한다. 소설에서의 물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술라』에서 자주 나오는 물의 이미지는 치킨 리틀이 물에 빠져 죽거나 바텀사람들이 동굴이 붕괴하여 물에 빠져 죽었듯이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짓는다. 그러나 물은 또한 웨드랙의 경우 생명의 물이다. 어부가 직업이자 부업인 웨드랙에게 물은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up>11)</sup>

8) Barbara Christian, "Trajectories of Self-Definition,"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p. 59.

9) Rosetta James and Louisa S. Nye, *Cliffs Notes on Morrison's The Bluest Eye & Sula*, (New York: Wiley Publishing, 1997), p. 92.

10) 가스통 바슐라르, 이가림 역, 『물과 꿈』, (서울: 문예출판사, 1998), p. 282.



술라가 어릴 적에 치킨 리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빙빙 돌다가 그녀가 손을 놓는 바람에 강물에 빠지게 된다. 치킨 리틀을 삼킨 강물은 “어둡고 닫힌 (darkened, closed)” 것으로 표현되어 죽음의 이미지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눈앞에서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강물이 아이를 삼켜버린 장면을 본 술라는 물이 가진 죽음의 이미지를 체험하게 된다. 이는 술라에게 트라우마가 되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며 그녀의 앞날이 결코 편치 않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술라에게 물은 두렵고 파괴적이며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반면 웨드랙에게 있어서 물은 ‘부드러운 물’이며 하나의 탄생과 같다. 치킨 리틀이 빠져 죽은 강물은 술라와 웨드랙의 만남을 이어준다. 웨드랙은 치킨 리틀이 물에 빠질 당시 넬과 술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그 사건을 목격한 인물이다. 술라는 치킨 리틀의 사건을 본 목격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웨드랙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웨드랙은 어린 술라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던 딱 한 번의 만남을 오랫동안 잊지 못한다. 평생을 외롭게 살던 웨드랙의 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한 손님은 술라이다. 술라의 방문을 통하여 웨드랙은 술라를 자신의 연인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버팀목이 된다. 술라와 웨드랙의 만남을 이끈 것은 바로 물이다.

물 중에서도 웨드랙은 특히 강과 연관이 깊다. 웨드랙은 제1차 세계대전참전 후 병원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난동을 부리다 따로 수용되었을 때 꿈속에서 창문 넘어 강의 소리를 듣게 된다. 강의 소리는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웨드랙에게 위안을 준다. 그가 어디서에서 왔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강이다.

물고기가 풍부하다고 그가 알고 있던 강이 내려다보이는 창문을 그는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바로 문 밖에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다. (10)

사람들은 강을 통해서 종교적 삶의 자세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병원에서 들었던 강의 소리가 그의 잊고 있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다면 변기의 물은 그의 자아를 완전히 찾게 해준다. 웨드랙에게 있어서 물은 죽음의 물이 아니라 자아를 찾게 해주는 부드러운 생명의 물이다.

웨드랙 외에도 『술라』 속의 남자들은 물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은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물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하지만 모리슨은 그 반대의 모티프를 사용한다. 『술라』에 나오는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유난히 연약하다. 남자 인물들의 이름도 보면 타르 베이비(Tar Baby), 보이보이(BoyBoy), 치킨 리틀(Chicken Little)처럼 어린 아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바는 플럼을 늘 ‘my baby’ 혹은 ‘sweet Plum’이라고 부

11) Wilfred D. Samuels and Cleonora Hudson-Weems, *Toni Morrison* (Boston: Twayne Publishers, 1990). Toni Morrison, *Sula* with essays in criticism (Seoul: Sinasa, 2007), pp. 249-250. Recited.

른다. 고된 삶과 심한 인종차별로 인하여 기력이 빠진 흑인 남자들은 물위에서 아무렇게나 표류하듯이 살아간다. 이들은 불처럼 정열적이거나 힘센 남성적 이미지가 없고 여성적인 이미지인 물과 관련되어 나온다.

이와 반대로 『술라』에 나오는 여자 인물들은 불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불은 끓어오르는 열정, 공격, 대립과 투쟁, 권력 등과 같은 원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특히 플럼 집안의 여자들은 정열적이며 파괴적이다. 술라와 이바는 자립심이 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술라는 항상 불타는 듯하다. 술라와 이바 외에도 한나 역시 불과 관련이 있다. 그녀는 불처럼 정열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숨기지 않는다. 늘 이웃남자들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녀가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은 필연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모리슨의 불은 단순히 파괴적인 성격과 죽음하고만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불은 스스로를 소멸시키며 빛을 발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와 본질을 획득한다. 플럼이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은 불의 파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정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전쟁을 치르고 온 플럼은 계속된 방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러한 플럼의 모습을 보자 참지 못한 이바가 그를 불에 태워 죽인다. 이바의 행동은 일종의 정화 의식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는 이 끔직한 행위에는 육체적으로 자식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자식을 재탄생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플럼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은 마치 세례의식을 받는 것처럼 묘사된다.

물과 불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있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물과 불은 생명력과 죽음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모리슨은 물과 불이 가진 각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술라』를 이끌어 가지만 단순히 물과 불이 가진 양면적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둘을 함께 묶고 있다. 즉 물과 불의 대립적인 관계를 해체시키고 결합하는 문학적 기법이다. 플럼과 술라의 죽음을 통하여 물과 불의 결합과 관련된 예를 찾을 수 있다. 플럼은 이바의 불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죽어가는 과정은 마치 물속에서 세례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는 몽롱했다. 이제 축축한 불빛 같은 것이 깊이 끌어당기는 냄새를 풍기며 그의 다리와 배 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다. 축축한 이 불빛은 그의 살갓을 튀기며 파고들면서 몸 주위를 온통 감싸고 있었다. 그는 눈을 뜨고 거대한 날개의 독수리처럼 보이는 것이 그의 몸 위에서 젖은 빛을 퍼붓는 것을 보았다. 일종의 세례식, 또는 일종의 축복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눈을 감고 다시 잠의 밝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47)

12) Wilfred L. Guerin,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5th edition. (London: Oxford UP, 2005), pp. 247-248.

육체적으로 멀쩡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이상 정상적일 수 없는 플럼을 이바는 불태워 죽인다. 이바는 플럼을 불로 태워 죽임으로써 플럼의 정신적 해방 즉 재탄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플럼도 자신을 불태워 죽이려는 이바의 심정을 이해한다. 따라서 그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불에 타 죽는다. 모리슨은 좀 더 재탄생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에 태우는 행위를 세례행위에 묘사함으로써 극의 절정을 만든다.

물과 불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물과 불은 따뜻한 면과 파괴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모리슨은 물과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 그녀 특유의 부드럽고 세밀하게 묘사를 한다. 이는 『솔라』의 시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다. 모리슨은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흑인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흑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에게 공감을 가져다주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이는 곧 흑인문학은 이질적이고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3. 선과 악

선과 악은 유사 이래 인간의 주된 관심거리였고 많은 예술품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진부하다고도 느껴진다. 선과 악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흔히 착한 영웅과 그 영웅을 괴롭히는 악당의 대비를 통해 잘 나타난다. 철학자들은 일찍이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왔다. 성선설과 성악설 혹은 백지설 등 사람의 본성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그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 백인문학의 전통은 종교 내의 양면적 대립의 영향을 받아서 선하거나 악한 등장인물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흑인문학에서는 선과 악은 상호 공존하며 진행 중인 협상과정으로 본다.<sup>13)</sup> 모리슨은 백인들의 관점이 아닌 흑인들만의 방식으로 선과 악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선과 악에 관해서 글을 쓸 때, 나는 서구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흑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악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흑인들은 악을 우주에서 자연스런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따라서 흑인들은 악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길 바랄 뿐이고, 교묘하게 다루려고 할 뿐이지 악을 결코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솔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악이다.<sup>14)</sup>

13) Linden Peach. *Toni Morrison*. (London: Macmillan, 1995), pp. 57-58.

14) Claudia Tate,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4), pp. 168-169.

『술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술라’라는 여자가 주인공이지만 흥미롭게도 술라는 바텀 사람들에게 ‘악녀’로 간주되는 여자이다. 반면에 술라의 단짝 친구인 벨은 착한 여자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왜 모리슨이 벨이 아닌 술라를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술라가 악녀로 취급받게 되는 이유를 보기 위하여 술라는 태생적으로 악한 존재인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 그녀를 악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녀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향 때문에, 여자란 자고로 신중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마을 사람들에게 문제아로서 찍힌다. 더욱이 그녀가 벨의 남편과 동침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독자들마저 그녀를 ‘악녀’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모리슨은 술라와 주드가 동침한 사건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기술한다. 다시 말해 벨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술라의 입장에서도 기술하고 있다. 술라로서는 벨의 남편과의 동침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술라는 주드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 그것이 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대한 애정을 함께 공유하며 누렸다. 즉, 한 남자아이와 둘 다 입맞춤을 해보고는 한 사람에겐 어떤 식으로 했고 다른 사람에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등을 비교했다. (119)

어린 시절 술라와 벨은 항상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래서 술라는 주드를 벨과 함께 공유한 것이다. 오히려 성인이 되었다고 예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벨의 모습에 술라는 서운함을 느낀다. 술라는 사랑의 ‘소유’ 라는 개념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녀는 벨과 주드의 결혼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술라가 소유의 개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공동체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데에는 평범하지 못한 가정환경의 영향이 크다.

술라의 가정환경은 결코 평범한 집이 아니다. 이바는 주체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여자이다. 남편 보이보이(Boyboy)가 가난과 자식만 남기고 떠나자 이바는 다리를 잘라 보상을 만든다. 그리고 그 돈으로 5년간에 걸쳐 하숙집을 짓고 가정을 꾸려 간다. 또한 집 없고 부모 없는 아이들인 듀이들을 거두어 같이 살게 한다. 이로 인하여 이바는 바텀 내에서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며 ‘선’(good)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플럼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

그러나 이바가 플럼을 죽였다고 해서 그녀에게 모성애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바는 모성애가 강한 여자이다. 가난에 시달려 어린 자식 세 명이 굶주림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다리를 잘라서 가정을 지킨 여자가 이바이다. 사실 그녀가 플럼을 죽인 것도 지나친 모성애 때문이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군 제대 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이바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그녀는 스스로 아들을 죽인다. 이바의 모성애는 강렬하지만

따뜻하지는 않다. 현실적이긴 하나 자기중심적이다.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바와 술라는 성격이 비슷하다. 둘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아들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죽이는 이바를 보면서 술라는 타인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충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모성애가 강한 이바와 달리 한나는 의무감으로 자식을 키우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술라를 사랑하듯 너도 그 애를 사랑하고 있어. 그저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You love her, like I love Sula. I just don't like her.”)(57)라고 말한다. 우연히 이 말을 듣게 된 술라는 충격을 받게 되고 이후로 그녀는 이 세상에 자신이 의지할 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따라서 술라는 결혼 등 여러 가지 사회 개념을 알지도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술라는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사랑을 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한나는 술라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녀는 남편 리카스(Rekas)가 죽은 후 남편의 친구나 이웃집 남편들과 밀회를 즐겼으며 자신의 집에서 하숙하는 것 결혼한 새신랑과도 동침을 한다. 한나는 사랑을 집착이나 소유로 보지 않고 욕망, 본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술라의 사랑은 한나처럼 자유롭고 소유나 집착이란 개념을 알지 못하게 된다.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조리실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들어갈 때와 똑같은, 아니면 더 행복한 표정인 것을 보면서, 술라는 성관계란 즐겁고도 자주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44)

그러나 술라에게 물려준 한나의 사랑 방식 역시 이바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스(Peace) 집안의 여인들은 보이보이를 제외하고 모든 남자들을 사랑했다. 이바가 그녀의 딸들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준 것은 바로 남자에 대한 사랑이었다.”(With the exception of BoyBoy, those Peace women loved all men. It was manlove that Eva bequeathed to her daughters.)(41).

결국 이바와 한나 그리고 술라로 이어지는 피스 집안의 세 여인들은 선과 악이 공존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는 마치 원형적인 관계와 같다. 이바는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었다. 한나는 그런 어머니에게 모성애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한나는 술라에게 사랑은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술라는 한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술라는 스스로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성인이 되어 늙은 이바를 하숙집에서 내쫓고 양로원에 보내게 된다. 피스 집안을 통하여 가정환경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서로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

공동체에서 악녀로 취급 받던 술라와 달리 넬은 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술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 반대의 성격을 지닌 넬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여자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그녀는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꼼꼼히 처리한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칭찬을 받는다. 믿음직한 친구이자, 부모를 공경하는 착한 딸이며 남편을 잘 따르는 현모양처이고 아이를 잘 키우는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다. 완벽할 정도로 착한 넬에게 술라는 의외의 질문을 던진다.

“넌 어떻게 아니?” 술라가 물었다.

“뭘 알아?” 넬은 그때까지도 술라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말아야. 좋은 사람이 너라는 걸 넌 어떻게 아니?”

“무슨 뜻이야?”

“내 말은 아마 넌 좋은 사람인지를 말아야. 좋은 사람이 너라는 걸 넌 어떻게 아니?” (146)

넬은 자신의 남편을 빼앗은 술라를 나쁜 여자로 취급하며 자신처럼 착실하게 공동체의 윤리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착하다고 믿는다. 술라가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실험적인 삶을 살았다면, 넬은 자신의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다. 넬은 흑인여자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며 공동체 안에서 순응하며 살고 공동체의 법도가 절대적이라고 믿으며 자기 멋대로 행하는 술라를 나쁘게 평가한다.

그러나 넬은 술라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도 못하고 반성도 없다. 자신은 피해자이자 선한 인물이라고 믿는 넬에게 이바는 넬에게 어떻게 치킨 리틀을 죽였냐는 예기치 않은 질문을 던진다. 치킨 리틀은 술라와 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치킨 리틀이 물에 빠져 죽던 날, 술라와 마찬가지로 넬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넬은 이바의 질문을 받기 전까지 술라에게만 모든 죄가 있고 자신은 지은 죄가 없는 착한 사람이라며 착각하고 있던 것이다. 이바는 치킨 리틀의 사건에 대하여 넬과 술라의 책임이 동시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바와의 대화를 통하여 비로소 넬은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며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넬은 침착하게 가만히 있었다.

“말해서는 안 될까?”

“그가 보았을까?”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자, 가자. 우리가 그 엘 되살릴 순 없잖아.”

‘너도 지켜봤지? 라고 말했을 때 이바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어떻게 그녀가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 분명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바는 ‘봤다’라고 하지 않았고 ‘지켜봤다’라고만 했어.

“난 지켜보지 않았어. 그저 보았을 뿐이야.”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그 옛날의 감정, 그 옛 질문들이 있었다. 치킨의 손이 빠져나갔을 때 그녀가 느꼈던 그 기분 좋은 감정. 여러 해 동안 그녀는 그걸 의아해하지도 않았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난 기분 나쁘게 느끼질 않았을까? 개가 물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좋게 느껴졌을까?” (170)

『술라』에 나오는 인물 중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선을 지닌 인물은 없다. 벨은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고 믿었을 뿐이다. 벨도 술라처럼 선과 악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벨처럼 사회 공동체 규범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규범이 절대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규범에 맞게 행동한 자신의 모습을 착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토록 선과 악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라고 구분되어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고 단지 사회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벨과 술라 속에는 각각 선함과 악함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선과 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선악 개념은 백인들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의하여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모리슨은 기존의 선악 개념에 대하여 반문한다. 그는 누가 선과 악을 정할 수 있으며 무엇이 진정한 선과 악인지 대해서 이야기 한다.

나는 어느 누구도 선과 악에 대해서 정말로 정의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선은 악처럼 보인다. 때때로 악은 선처럼 보인다. 당신이 무엇이 진짜인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선이 일반적으로 좀 더 재밌고 복잡하긴 하지만, 악은 선만큼 유용하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좀 더 복잡하다. 물론 선한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하는 게 힘들진 않았다.<sup>15)</sup>

다시 말해 모리슨은 선과 악은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 그 관계는 서로가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선은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의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다. 악으로 취급받는 술라가 죽고 나자 바텀 내의 선과 악이 갖고 있던 긴장관계가 깨져버린다. 마을 사람들은 술라가 죽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한다. 하지만 이는 곧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속력을 다지려던 바텀 사람들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술라가 이바를 양로원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 여자들은 술라처럼 나쁜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늙은 시어머니를 불평 없이 뒷바라지 했다. 그러나 술라가 죽고 난 후 긴장감이 사라지자 노인네들을 보살피는 일이 귀찮아졌기 때문이다. 술라로부터 자신의 남편을 보호하며 잘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던 바텀 부인들은 술라가 없어지자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술라로부터 아이를 보살피려는 어머니들의 모

15) Stepto, pp. 13-14.

성애도 약해진다. 악의 부재는 선을 더 좋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악으로 인한 긴장 상태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해이해졌으며 예전 슬라가 없던 본래 무묘한 상태로 되돌아갔을 뿐이다. 이는 곧 선과 악이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함을 나타내준다. 요컨대 모리슨은 선 악 개념을 양면적으로 뚜렷하게 구분했던 기존의 백인들의 관념이 아닌 선과 악이 공존하는 흑인들의 시각을 통하여 흑인들의 세계를 이야기 해주고 있다. 슬라와 넬, 한나, 이바와 바텀 사람들 모두 선과 악을 지닌 양면적 존재이다. 선과 악에 관한 절대적인 개념은 없다. 다만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모리슨은 슬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넬을 슬라와 똑같은 비중으로 설정함으로써 선과 악의 개념을 재정립 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Ⅲ. 수용과 화합

모리슨은 “나는 소설을 쓰면서 흑인의 삶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에 관해서 포착하려고 의 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흑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단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sup>16)</sup>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논의된 흑과 백, 물과 불, 선과 악의 양면적 이미지들은 바로 흑인들의 생각을 읽어 낼 수 있는 문화적 메타포들이다. 여기에 모리슨은 ‘수용’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흑인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한다. 수용이라는 것은 배려와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배려와 이해가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은 폭력에 가까울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흑인들에게 가진 편견을 없애고 진정한 의미로서 흑인들을 수용하며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슬라』에서 모리슨은 웨드랙, 슬라, 듀이들, 타르 베이비와 같이 아웃사이더들을 등장 시킴으로써 흑인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을 수용하는지 보여준다. 웨드랙의 경우를 보자면, 전쟁 후 이상한 행동만을 일삼는 웨드랙을 보면서 바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텀 사람들은 웨드랙을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바텀 내의 사회적 규범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웨드랙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놔둔다. 바로 여기서 흑인들의 관용적 배려를 엿볼 수 있다. 흑인들은 새로운 것을 보면 공통점 보다 차이점을 먼저 확인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점을 인식하고, 원래 모습 그 자체를 수용하려고 한다.

바텀 사람들은 웨드랙뿐만 아니라 항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슬라도 같이 살도록 허

16) Charles Ruas,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4.), pp. 99-100.



용한다. 모리슨은 악녀라도 취급받는 술라를 마녀사냥을 하듯 내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바텀 밖에 없다고 말한다.<sup>17)</sup> 흑인들도 물론 다른 인종들처럼 악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선과 악을 뚜렷이 구분하고 악을 배척하려는 백인의 관점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모리슨은 선과 악이라는 대립적인 요소를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바라보기 보다는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바텀의 사람들은 술라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흑인들은 선과 악의 공존은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악은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악으로부터 자신들의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또 다른 아웃사이더인 듀이들을 수용하는 과정은 좀 더 흥미롭다. 이바는 딱한 처지에 있는 세 명의 남자 아이들을 돌본다. 문제는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세 명의 아이들을 이바가 '듀이'라는 한 이름으로 부르며 한 점에 있다. 세 명의 아이들은 이바가 정해준 이름처럼 늘 셋이 하나가 되어서 행동을 한다. 듀이들은 급기야 스스로 성장하기를 멈추고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다. 현실과 초 현실을 넘나드는 이와 같은 설정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모리슨은 듀이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수용할 때 항상 이성적인 논리가 동반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하는데 있어서 진정한 기초가 될 것이다.

타르 베이비 이바의 하숙집으로 사는데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외모를 지녔다. 마을 사람들은 타르 베이비를 혼혈로 생각했지만 이바는 그를 완전한 백인으로 취급한다. 어찌되었든 바텀 사람들은 타르 베이비의 외모를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일단 타르 베이비가 흑인들의 마을로 온 이상 사람들은 그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넬과 술라를 통하여 수용과 화합의 절정을 느낄 수 있다. 과거 넬은 술라를 만날 때마다 마치 백내장이 제거되어 시력을 되찾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러나 술라가 넬의 가정을 파탄 내게 함으로써, 이 둘의 우정은 끝이 난다. 술라가 죽었을 때 모든 뒤처리를 한 것도 넬이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술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진실한 수용은 남을 먼저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넬은 술라를 수용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소설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넬은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술라를 받아들이게 된다. 넬은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워했던 사람은 주드가 아니라 술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일깨워주던 이는 주드가 아니라 술라였기 때문이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동안 내내, 난 떠나간 주드를 그리워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상실감이 그녀의 가슴에 밀려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17) Tate, pp. 168-169.

“우린 둘 다 소녀였지.”

그녀는 마치 무엇을 설명하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오 하나님, 슬라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이 계집애야, 이 계집애야, 이 계집애야.....”

그것은 크고 긴, 한바탕 멋진 울음이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밀도 없고 끝도 없는 그저 슬픔의 등근 원, 원들이었다. (174)

모리슨은 벨의 울음을 등근 원(circles)이라고 표현한다. ‘원’은 예로부터 전체성과 통일성을 상징한다.<sup>18)</sup> 벨이 슬라를 받아들임으로써 벨과 슬라는 합쳐지게 되고 이는 원과 같은 완전함을 이룬다. 벨은 이바를 통해서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었고 이는 자신과의 수용을 뜻한다. 자신과의 수용이 이뤄지니까 벨은 슬라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은 또 다른 영속성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슬라와 벨의 화합은 소설이 끝난 뒤에도 영원히 이뤄질 것임을 암시해준다.

하나의 기준에 따라 우열을 나눈다는 것은 아집과 독선이다. 상대방이 가진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수용이며 화합을 향해 가는 길이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흑백이라는 양면적 갈등을 지니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은 백인의 기준에서 흑인을 바라봤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는 왜곡된 편견이 들어있다. 모리슨은 흑인이 가진 생각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다.

피부색깔로 인하여 흑인에 대한 편견이 많다. 흑인들을 바라볼 때 늘 아프리카 원시 부족과 연관시켜 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마약, 폭력 등 부정적인 뉴스 보도들로 인하여 두렵다고 생각한다. 인류·역사적으로 보면 흑인들만 노예생활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부색깔 때문에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노예라는 이미지도 강하다.

심지어 비평가들도 흑인문학을 비평하길 어려워한다. 자신들과 흑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평가들은 흑인문학은 다양하지만 비평가들은 단지 피부색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종류의 문학을 한 종류로 취급해버린다. 이는 마치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저마다 다른 부족이었고 다른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데 묶어버렸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모리슨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흑인들의 사고방식을 말해준다. 그중에서도 특히 양면성간의 공존을 다루었으며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슬라』에 나오는 인물들은 남을 수용할 줄 안다. 바텀 사람들은 슬라와 섀드랙을 쫓아내지 않고 한 동네에서 함께 살도록 한다. 바텀의 남자들과 끊임없이 잠 자리를 했던 한나였지만 그녀가 죽었을 때 바텀의 여자들은 손수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며

18) Guerin, pp. 186-187.

서글피 운다. 흑인이 아닐지도 모르는 타르 베이비를 바텀 사람들은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하였고 타르 베이비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학대를 받았을 때 에이잭스를 비롯한 흑인 남자들은 그를 구하러 간다. 이바는 길거리 아이들인 듀이들을 거두어 기른다. 듀이들이 자아 정체감 없이 함께 행동하고 다녀도 주변 사람들은 듀이들을 떼어놓지 않는다. 넬은 자기 남편과 동침을 하여 가정을 파탄 냈던 술라를 받아들인다. 『술라』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외모가 다름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하여 차별을 하지 않는다. 다만 경계를 할 뿐이다. 모리슨은 양면적 대립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벗어나 수용하고 화해하자고 이야기 한다.

모리슨은 『술라』를 통하여 흑인들은 ‘착하다’ 라든가 ‘피해자이다’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독자들에게 어떠한 큰 교훈을 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또한 백인들에게 받은 인종차별을 분노로 표현하지 않는다. 다만 독자들이 그녀의 소설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느끼고 즐기길 원하는 것이다. 모리슨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고 혹은 알려지더라도 편견에 쌓였던 흑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게다가 모리슨은 섬세하고도 치밀한 묘사와 풍부한 상상력을 통하여 생생한 흑인의 모습을 표현해낸다. 따라서 그녀의 이야기들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마치 실제 현존하는 듯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모리슨이 가진 풍부한 문학적 재능은 독자들로 하여금 즐겁게 책을 읽게 만드는 동시에 흑인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게 한다. 또한 기존의 선입견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 독자 역시 흑인들을 이해하게 되며 그들을 진정으로 수용하게 된다.

#### IV. 결 론

『술라』는 대립적인 두 가지 요소가 소설의 큰 틀을 이루고 있다. 등장인물부터 보자면, 악녀로 평가 받는 술라와 착한 넬을 시작으로 이바와 로셀, 한나와 헬렌, 리카스와 윌리 등 피스 집안과 라이트 집안이 짝을 이루고 있다. 또한 술라, 쉐드랙, 듀이들, 타르 베이비와 같이 사회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인물들과 사회적 체계를 잘 습득한 넬을 비롯한 일반 바텀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플럼, 쉐드랙, 타르 베이비, 주드와 같은 연약한 남자와 이바, 술라, 헬렌 등과 같은 강인한 여자들이 대비되며<sup>19)</sup> 몇몇 사회·경제적 주도권을 지닌 백인들과 그렇지 않은 흑인들이 모습이 등장한다.

19) Philip Page, "Shocked into Separateness: Unresolved Oppositions in Sula." *Dangerous Freedom: Fusion and Fragmentation in Toni Morrison's Novels*.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5), pp. 270-271.

하지만 모리슨은 『술라』를 통해서 이분법적 대립 요소들을 이야기 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모든 대상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말한다. 『술라』에는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 착하다고 믿었던 벨도 문제가 있고 나쁘게만 봤던 술라에게도 이해가능한 부분이 있다. 결국 이분법적 시각으로 인물 구조와 내용이 짝을 이루어 소설의 틀을 만든 것 같지만 실상은 대립 요소들 간의 수용과 화합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술라』에서는 대립되는 요소들을 통해서 갈등이 증폭되지만 요소들 속에 내포된 양면성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며 갈등을 극복하게 된다.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와 사랑이 밑바탕이 된 수용이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수용이 이뤄질 수 없고 화합의 길은 차단되어 버린다. 모리슨이 양면적 요소들을 소설 속에 넣은 것은 수용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였음을 보여준다.

바탕에 사는 흑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비주류에 속한다. 그들은 인종차별로 인하여 원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사는 곳까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하지만 흑인들은 분노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술라는 벨에게 백인처럼 되기보다는 자신과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준다. 술라의 영향으로 벨은 더 이상 밤마다 백인 여자처럼 되기 위하여 빨래집게로 코를 콧거나 머리를 펴는 일에 흥미가 없다.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야말로 흑백간의 갈등을 넘어서 흑인이 가진 독특한 부분을 다양성으로 극복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길임을 알 수 있다.

물과 불은 보편적 상징체계로서, 모리슨이 가진 특유의 함축성과 섬세한 묘사를 통하여 전달된다. 물과 불은 유약한 남자와 강인한 여자라는 상반된 이미지와 생명과 죽음이라는 양면의 세계를 지니고 있다. 『술라』에 나오는 주드, 타르 베이비, 플럼, 에이잭슨, 보이보이 등은 삶의 의욕을 잃고 물위에 떠다니듯이 방황하는 삶을 산다. 반대로 이바, 헬렌, 술라는 권력을 지녔고, 여자로서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한다. 한편 물과 불을 생명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술라, 치킨 리틀, 바탕 사람들에게겐 물은 어둡고 깊은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부이자 삶 자체가 물과 관련 깊은 쉐드랙과 자신의 몸에 부어지는 기름을 세례의식처럼 맞이하는 플럼에게 물은 새로운 생명의 이미지를 지닌다. 반면 불에 타서 죽은 한나, 플럼에게 불은 두려운 이미지이다. 하지만 불은 아이러니하게도 플럼에게 정신적 재탄생이라는 생명을 부여한다. 그는 전쟁으로 인하여 유아기적 퇴행성을 보이지만 불에 타 죽음으로써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 모리슨은 물과 불이 가진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양면적 갈등을 표현해냈고 물과 불이 합쳐진다는 문학적 표현을 통하여 시각적 효과까지 가져오게 한다.

선과 악은 『술라』의 가장 큰 양면적 틀이다. 모리슨은 악녀 술라와 선한 벨이라는 대조적인 인물과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양면적인 주변 인물들을 통하여 선과 악의 개념을

되새기려 한다. 동시에 선과 악의 양면적 갈등만을 야기 시키던 기존 백인의 관점을 벗어나서 선과 악의 공존이라는 흑인의 관점으로 본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다.

주인공 술라가 피부색을 넘어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다면, 모리슨은 새로운 흑인 소설 「술라」를 통하여 새로운 흑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더하여 소설의 큰 틀을 이루는 양면성의 대립 요소들은 피부색깔로 인하여 무섭다는 편견을 받는 흑인들이 남을 수용할 줄 아는 배려 깊은 인종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인간 내면의 갈등을 양면적 요소들로 표현한 것은 물론 인종차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흑인들의 아픔과 백인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흑인들의 역설적인 모습까지 모리슨은 균형 있게 기술하여 문학의 폭을 확장 시키고 있다. 모리슨은 「술라」를 통하여 양면적 대립관계를 넘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흑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 BIBLIOGRAPHY

### I. Primary Sources

Morrison, Toni. *Sula*.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 II. References

- Christian, Barbara. "Trajectories of Self-Definition."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 Davis, Christina.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4.
- Galehouse, Maggie. "New World Women: Toni Morrison's *Sula*." *Papers on Language & Literature*, 35.4 (Fall 1999).
- Guerin, Wilfred L.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5th edition. London: Oxford UP, 2005.
- James, Rosetta and Nye, Louisa S. *Cliffs Notes on Morrison's The Bluest Eye & Sula*. New York: Wiley Publishing, 1997.
- Morrison, Toni. *Sula* with essays in criticism. Seoul: Sinasa, 2007.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by Kim, Myoung-Joo.
- \_\_\_\_\_, "Unspeakable Things Unspoken: The Afro-American Presence in American Literature." *Michigan Quarterly Review* 28 (Winter 1989).
- Page, Philip. "Shocked into Separateness: Unresolved Oppositions in *Sula*." *Dangerous Freedom: Fusion and Fragmentation in Toni Morrison's Novels*.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5.
- Peach, Linden. *Toni Morrison*. London: Macmillan, 1995.
- Ruas, Charles.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4.
- Samuels, Wilfred D. and Hudson-Weems, Cleonora. *Toni Morrison*. Boston: Twayne Publishers, 1990.
- Stepto, Robert. "Intimate Things in Place: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4
- Tate, Claudia. "Toni Morriso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94.
-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 이가림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8.
- \_\_\_\_\_. 『불의 시학의 단편들』. 안보옥 역. 서울: 문학동네, 2004.
- 존 하워드 그리핀. 『블랙 라이크 미』. 하윤숙 역. 서울: 살림, 2009.
- 토니 모리슨. 『솔라』. 김애주 역. 서울: 도서출판 들녘, 2005.
- 이영철. 『흑인에 대한, 흑인을 위한 토니 모리슨의 문제의식』.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장태한. 『黑人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